

성 명	이연섭
-----	-----

■ 입후보자 소감

안녕하십니까!

19대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회장입후보자 이연섭입니다. 대한민국 물리치료(학)과 교수로서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수는 물리치료교육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며, 교육을 통하여 미래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키우고,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전문 직업가로 만드는 데에 모든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물리치료교육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학생을 지도하고 함에 앞서 대한민국 물리치료교육의 표준화, 전문화하여 지역별, 계층별, 학제별로 소외되거나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전문물리치료사를 배출하고 대학과 교수, 학생과 임상이 교육기반 통한 상생과 동반성장,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사회 의료패러다임 전환으로 복잡해지는 의료문제에 대응하며, 약자인 학생을 보호하고 나눔을 선도하여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정한 물리치료(학)과 교수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대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회장입후보자 이연섭

## ■ 입후보자 공약

이번 공약은 꿈과 미래지향적인 계획보다는 실현가능성에 기반하여 2년 안에 이를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친목과 단합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는 교수님들은 460여명 정도이며, 2021년 기준 협의회 회원은 3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3정도 되는 교수님들께서 무엇보다 우선 가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단체인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회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우선 협의회 최우선 목표인 단합과 선배교수님들과의 조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 1) 지역 중심 교수협의회 운영 및 지원
- 2) 신입교원 가입 및 1차 년도 회비 면제

### 2. 대한민국 물리치료의 표준화

대한민국의 물리치료는 다양성과 전문화로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부족함과 뒤처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물리치료와 타학문과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위해 표준화 부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의료현장은 전쟁터와 같은데 표준화를 통하여 지역간의 다름이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 1) 학생실습 표준화
- 2) 검사 및 평가항목의 표준화
- 3) 물리치료 차트 개발

### 3. 국가고시

국가고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교수님들께서 참여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국시위원 추천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회원 +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회 회원을 바탕으로 최근 3년 이상 해당교과목수업을 하신 교수님들로 구성하여 최신의 교수내용이 국가고시에 반영되도록 신규문제 등을 출제하고,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 주축이 된 국가고시 자문단을 운영하여 현행 시험 수준을 유지하며 변화/발전시키고자 합니다.

### 4.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확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현재 협의회에 구축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 정책기반 네트워킹 -> 진행 -> 결과를 도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타 의료직종 관련 교수회와의 교류확대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 1) 국가시험발전위원회
- 2) 전문물리치료사제도 연구위원회
- 3) 한국물리치료교육평가원 협력위원회
- 4) 학제일원화 연구위원회

젊음의 폐기, 열정, 공정을 바탕으로 도전하여 이루고 싶습니다. 많아 부족하다고 꾸짖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을 선배교수님들과 후배교수님들께서 알뜰히 살피고 채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동영상에 있는 경우 링크 첨부 (youtube에 업로드 후 링크제출)

--